

현대 러시아의 통치 이념 : 푸틴주의(Putinism)의 성격 및 평가



우 평 균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woopk@hanmail.net>



I. 서론

1991년 12월 30일 소연방 붕괴 이후 러시아의 여러 정치 세력 및 이데올로그들이 다양한 정치 이념을 전파하고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과거 소련 시대에 공산당이 강요하는 획일적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념과 사상을 탐구하고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러시아 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허용된 시기가 도래하고, 좌와 우 사이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 선상에서 이념적 지향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1990년대 엘친(B. Yeltsin) 대통령의 통치를 마감하고, 현 푸틴(V. Putin) 대통령이 총리로써 중앙 정치무대의 주역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199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이른바 '푸틴주

의(Putinism)라는 독특한 현상이 러시아 정치를 지배해 왔다. 푸틴주의는 처음부터 정치이념이라기보다는 통치자의 통치 이념으로 생겨나서 존속해왔다. 현대 러시아의 정치 이념은 개방의 시기가 되었지만 통치 이념에 존속되는 상황이 조성되어 온 것이다.

정치학적인 개념으로 볼 때, 푸틴주의는 정치체제의 측면에서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혹은 '권위주의화' 과정과 동일시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에서 푸틴주의 전개는 독특한 러시아적인 상황과 질서의 산물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푸틴은 8년간의 재임을 마치고 2008년 메드베데프(D. Medvedev) 당시 총리를 지명하여 대통령직을 넘겨주었던 4년의 기간 동안 자신은 다시 총리가 되었고, 메드베데프 집권 종료 이후 다시 대선에 도전, 당선되어 2012년 5월부터 자신의 3기 재임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메드베데프 집권 시기에도 푸틴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했고, 자신의 정책 기초를 유지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푸틴주의는 존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대 2024년까지 재임의 길이 열려있는 푸틴의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하기에 21세기 러시아 정치는 푸틴의 영향력을 배제하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적용해 보면, 푸틴이 최초로 집권한 2000년 이후 푸틴주의는 지속되었다는 전제가 가능하다.

푸틴주의는 국가운영(statcraft)을 위한 '기획'(program)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정치적 슬로건(slogan)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¹⁾ 정치적 슬로건의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강한 러시아(Great Russia, Strong Russia)', '법의 독재(dictatorship of law)', '수직적 권력(vertical power)',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Rebirth of Strong Russia)' 등이 해당된다. 푸틴주의는 정교한 이념적 장치와 내용을 구비한 확고한 이념체계라기보다는 푸틴 개인이 러시아 국가의 지향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관점이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푸틴의 개인적인 스타일(style)이 가세하여 통상 푸틴주의라고 칭하는 논리체계를 생성했다고 여겨진다.

푸틴주의가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이후에 이를 소개하고 평가하는 상당수 문헌들, 특히 국내에서 푸틴주의를 앞서 언급한 '강한 러시아'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²⁾ 즉, '강한 러시아'는 1990년대 소연방 붕괴와 신생 러시아의 출범 과정에서 약화된 러시아의 국력을 회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보건 등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무질서와 중앙 권력의 통치력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새 목표이자 구호였으며, 당시 상황에서 이는 필연이었기에 대다수 러시아 국민들이 이를 염원하고 지지했다는 데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푸틴주의가 제기될 수

1) Allen C. Lynch, *Vladimir Putin and Russian Statcraft* (Washington D.C.: Potomac Books, 2011), pp. 5-15.

2) 정한구, 『푸틴-메드베데프 체제의 출범과 러시아 정치의 장래』, 세종정책연구 4-1(성남: 세종연구소, 2008); 이영형, "러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주권민주주의의 자국요인," 『한국과 국제정치』 제25권 제2호(2009); 이종문, "푸틴시대 러시아 국가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 국가경제발전모델의 관점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1호(2010); 고재남·엄구호 엮음, 『러시아의 미래와 한반도』(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밖에 없었던 러시아의 배경적 요소와 푸틴 집권 이후 푸틴주의의 실행과정은 2000년대를 경과하면서 러시아 내부에서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큰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1년 말 총선을 치른 이후부터 푸틴주의에 대한 비판이 국내외적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즉, 단순히 슬로건 차원에서 푸틴주의를 합리화하는 요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부적인 문제 점들을 노정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푸틴이 푸틴주의를 내세우면서 장기 집권하는 데 따른 피로감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푸틴주의가 갖고 있는 특성과 장점 뿐 아니라, 푸틴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밝힘으로써 푸틴주의를 합당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한 관점에 입각하여 푸틴주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려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제2장에서 푸틴주의의 일반적 성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푸틴주의의 내용을 수직적 권력, 법의 독재 및 주권민주주의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푸틴주의의 유형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푸틴주의 자체가 과거에 존재하던 여러 유형의 체제가 갖고 있는 특성을 조금씩 갖고 있는 '혼합형 체제(hybrid system)'로써, 하나의 독특한 이념임을 제시할 것이다.

II. 푸틴주의의 일반적 성격

현대 러시아에서 푸틴주의는 하나의 이념인가? 이념형으로서의 푸틴주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푸틴 개인의 사고와 스타일의 혼합체로 푸틴주의는 출발했고, 여전히 이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념 구조라기보다는 리더십의 한 유형으로 보기도 한다.³⁾ 개념적으로 본다면, 푸틴 집권이 장기화하면서 푸틴주의의 내용적 요소로 등장한 몇몇 개념들이 있을 뿐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권 민주주의'가 해당된다. 푸틴주의는 일반적인 이념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도 확립된 것이 없으며, 푸틴주의를 소개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될 뿐이다. 푸틴주의는 이처럼 이념으로서 실체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집권이 점차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의 일선 학교에서 교육되고 있으며, 언론 매체에서 선전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푸틴주의는 러시아 외교정책의 근간이면서, 동시에 지나간 과거사에 대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지침이 되기도 한다. 또한 푸틴주의는 외견상 목표를 갖고 있고 있다. 러시아가 강력해지도록 만들어 과거와 같이 러시아를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국가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을 늘 강조한다. 이를 통해 현 지배 계급의 권력과 부를 보호한다는 점도 사실상

3) 강봉구, "푸틴주의 정치 리더십의 권위주의적 특성과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14권 제2호(2010), pp. 3-30.

전체가 되고 있다.⁴⁾

푸틴이 제3기 집권을 하기 전까지 대체로 푸틴주의에 대해서 푸틴주의가 표방하는 슬로건이나 국가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2012년 푸틴이 재차 집권하면서 12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푸틴체제에 대한 전망이 자연스럽게 지나간 푸틴체제를 평가하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푸틴주의가 내세우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푸틴체제 혹은 푸틴주의 자체의 성격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흐름은 푸틴주의가 최초로 등장한 2000년대 초반에 푸틴주의와 러시아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했던 서구의 일부 전문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푸틴주의에 대해 기대했던 만큼 내용적인 만족감을 얻지 못하면서 비판적 입장에서 푸틴주의를 평가하게 된 일련의 흐름과도 연관된다.

비판적인 입장에서 푸틴주의의 요체를 분석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이 드러난다.

첫째, 모든 국정운영의 형식에 있어 '관리(managed) 체제를 선호한다. 푸틴은 소련시대의 KGB에서 정보원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했기에 정보수집과 기획 및 전략적 사고에 능하다. 즉 정치인으로서의 모습보다 과거부터 몸에 밴 습관처럼, '통제(control)를 기획하는 데 익숙해있다. 선거를 예를 들자면, 정부가 선거 과정을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선거에 참여할 정당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내용적으로 철저하게 기획된 선거 관리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선거과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선거에 참여가 허용되는 세력은 사실상 정권에 치명적인 반대를 하는 적수가 되지 못하고 '충성스러운 야당(loyal opponents)이 되어 체제 내에서 공존 가능하다. 반면에 크렘린의 진정한 적은 '주변화'되는데(marginalized), 대체로 투옥·망명하거나 박해를 받는 등 인신에 대한 구속을 수반한다.

둘째, 앞서 지적한 '관리'라는 형식은 결과적으로 조작(manipulation)을 가능하게 한다. 관리와 조작의 일상적인 실행은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참가자들의 선택의 폭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작용을 한다. 선거의 경우,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사실상 중앙 정부가 예정된 각본에 의해 정해지도록 상황을 조정할 경우, 선거의 주체인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당국이 임의적으로 선거에 초대할 후보자는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선거 참여와 당선 가능한, 보장된 결과를 거의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⁵⁾ 그 대표적인 예가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Party)의 당수인 지리노프스키(V. Zhirinovsky)를 들 수 있다. 지리노프스키는 권력당(party of power)이나 여당 성향의 당보다 강한 톤으로 집권당을

4) Anne Applebaum, "Putinism: The Ideolog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Strategic Update*, vol. 13, no. 2 (February 2013), pp. 3-4.

5) Vladimir Gel'man, "Political Opposition in Russia: A Dying Species?" *Post-Soviet Affairs*, vol. 21, no. 3(2005), p. 242.

대신해 민족주의적 정서를 고양해왔고, 원내에 들어와서는 크렘린에 협조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 2012년 대선처럼, 보다 최근에는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폭을 확대하여 프로코로프(M. Prokhorov) 같은 올리가르히(Oligarchs)가 대선에 입후보한 것처럼, 다소 약한 반대세력의 진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반대세력을 다소 용인하되 대세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조정을 통해 국정을 주도하려는 자세를 보여주기도 했다.

셋째, 푸틴주의는 시민사회를 통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속성이 있다. 서구의 기준으로 볼 때,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정당한 일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시민단체나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에 대해 푸틴과 그 주변 인물들은 주로 자신들의 과거 직업적 배경이나 훈련 과정에서 습득한 관점에 입각해 모든 종류의 환경, 교육 및 자선 기관을 민주주의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정상적인 기관으로 보지 않고 아마도 서구의 스파이와 연계된 비밀 네트워크의 표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 체제의 핵심세력들은 국가가 통제하는 청년 단체, 조합, 각종 시민단체들을 직접 관장하려 한다. 푸틴 스스로도 그렇지만, 푸틴이 발탁한 ‘실로비키(siloviki)로 지칭되는 정보기관이나 군, 경찰 출신의 권력 핵심층 인사들은 서구에 적대적인 감정을 주입받으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해왔으며, 서구의 기본적인 이익이 러시아를 약화시키는데서 비롯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푸틴주의를 철저한 ‘관리 체제(management system)’의 일환으로 간주한다면, 푸틴주의는 이념이라기보다는 통치 방식에 가까운 속성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푸틴 체제는 정치, 경제, 언론, 시민사회 등 통제 가능한 체제 내 각 요소들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행위자를 선정하고, 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대상에 대해서는 배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규칙을 제정·실행하는 관행을 확립해왔다.⁶⁾ ‘수직적 권력’ 개념은 이같은 측면에서 용어 그대로 적실성을 갖고 있다. 다만 ‘법의 독재’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국가질서를 확립한다는 원칙적 측면에서는 부합하지만, 사실상 푸틴주의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법을 초월하는 독재를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노정되었다.

Ⅲ. 푸틴주의의 내용

1. 수직적 권력

푸틴 집권 기간, 특히 2000-2008년에 러시아의 국가 통치 능력이 대폭 강화되었다. ‘수직적 권

6) M. Steven Fish, *Democracy Derailed in Russia: The Failure of Open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 54-60.



〈그림〉 푸틴을 지지하는 청년단체 <나쉬(Nashi)>의 붉은 광장에서의 집회 장면(2011년 12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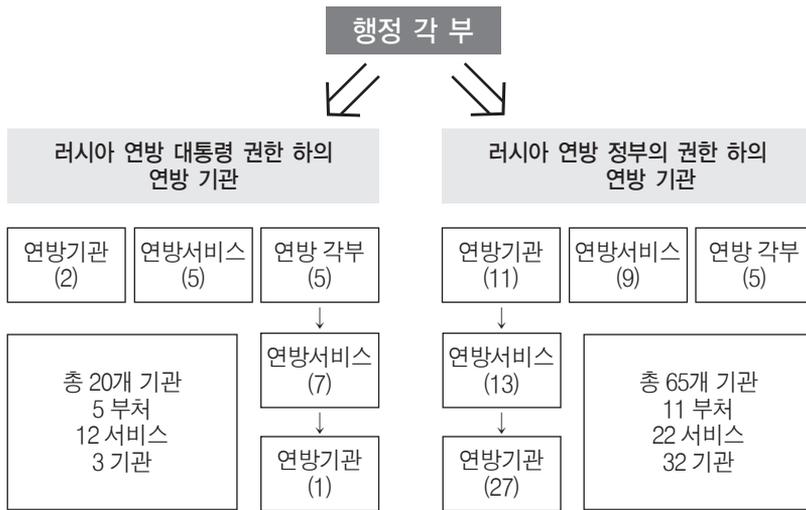
력' 혹은 '권력의 수직화'라 명명된 현상에는 광범위한 개편이 수반되었다. 국가기관을 중앙집권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일컫는 이 용어는 2004년 북부 코카서스의 베슬란(Beslan)에서 체첸 나(Chechen) 테러리스트들이 자행한 학교 인질극을 겪은 연후에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한 일련의 흐름을 대변한다. 푸틴은 지역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실력자를 선거로 선출하는 행위를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연방관구를 신설하고 대통령 전권대표를 파견했다. 푸틴은 대통령이 지방 지도자에 대한 해임권을 갖고 지방의회 해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또한 연방과 지역의 법을 개정하고, 사법부에 대한 재정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동시에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입법부와 언론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이루어진 국가 기관에 대한 의존성의 상이함은 국가 관료제의 통합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정도로 진행되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과 경찰을 포함한 국가 기관의 권능과 도덕성이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했다.⁷⁾ 엘친 통치기에 올라가르히와 연계하여 국가의 소유물을 사적 이익의 대상으로 전환했던 상황에서 푸틴 집권 이후에는 국가 관리에 의해 비즈니스 부문이 포획되는 현상으로 전환되었다. 미디어를 비롯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들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유하는 현상이 눈에 띄게 확대되었고, 실로비키가 직접 비즈니스 부문에 대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통제하는 현상 역시 나타났다. 공무원의 지대추구(rent-seeking) 현상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집행 권한이 대폭 확장된 국가 관료들은 자원의 배분에 관여하여 상납을 받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⁸⁾

7) Г. Сатаров, "Недоваренная лапша на развесистых ушах. Вертикаль власти *Ежедневный журнал*, 21 October 2010, <http://ej.ru/?a=note&id=10484> (검색일: 2014.1.26).

8) Alena V. Ledeneva, *Can Russia Modernise?: Sistema, Power Networks and Informal Gover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 69.

푸틴 집권 이후 수직적 권력을 적용한 결과 국가의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에 있어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각기 연방 수준에서 각자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이중성'(duality)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같은 이슈를 언급하면서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⁹⁾ 수직적 권력이 실행된 결과 권한과 규모가 비대해진 대표적인 정부기관이 크렘린(Kremlin)의 대통령 행정실(Presidential Administration)로 지목되고 있지만, 이 기관을 개혁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 탈소비에트 러시아의 엘리트 연구를 꾸준히 진행시켜 온 올라 크리쉬놉스카야(Olga Kryshтанovskaya)에 따르면, 약 2,000명이 근무하는 대통령 행정실은 스스로를 '킹 메이커'(king-maker)로 여기고 있는데, 정치를 조작하고 언론 매체를 통제한다는 자만심에서 이같은 자평이 비롯된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⁰⁾ 현대 러시아에서 대통령 행정실의 권력은 이중적 집행 권력의 특성일 뿐 아니라, 권력 부서들 간의 균형의 부재를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표1〉 연방 집행 권력의 구조: 국가 거버넌스 구조의 이중성



※ 총 85 연방 기구: 16 연방 부처, 34 연방 서비스, 35 연방 기관

※ 출처: Alena V. Ledeneva, *Can Russia Modernise?: Sistema, Power Networks and Informal Gover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 70.

수직적 권력의 실행 결과 대통령실과 연방기관 등 기관을 넘나드는 네트워크와 연대의 기제를 구축과 각 수준에서의 국가 관료의 증원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대통령실과 연방정부 구조 간의 구분이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러시아 국가의 거버넌스 구

9) В. Миронов, "Комментарий. Админреформа: удвоенный аппарат," *Ведомость*, № 108, June 16, 2005.

10) Ольга Крыштановская, *Анатомия Российской Элиты* (Москва: Захаров, 2005), pp. 209-216.

조와 집행능력은 기관을 초월하는 연계와 조정 기제를 통해 강력하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수준의 개혁 수행을 가로막고 있다.¹¹⁾ 2004년 푸틴이 집행한 행정개혁에 의해 최고위 공무원의 숫자가 제한되었지만, 2006년에는 증가했다(표2). 오히려 2006년 이후에는 고위직 각급 레벨에서 정원이 대폭 증가했다. 2008년부터는 연방 차원에서 20,000명, 지방정부에서 60,000명, 일선 말단 지역에서 50,000명의 공무원이 추가적으로 증원되었다. 최근까지 연방 수준에서만 적어도 (사법부를 포함해) 510,000 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놓고 감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¹²⁾

〈표2〉 2003-2006년 최고위 공무원 숫자의 변화

숫자	2003년 행정개혁 이전	2004년 행정개혁 1년 후	2006
부총리	6	1	3(2007년에는 5)
연방서비스	30	16	16
연방기관	18	33	3.5
차관 총 수	3	28	3.2
	16	2	8

※ 출처: Э. Шишукново, *Известия*, №. 189, October 12, 2006.

푸틴 집권기 연방 정부의 국가 관료와 지방 및 일선 행정단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증가와 관료의 강력한 권한 행사는 푸틴 대통령 집권 시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가깝게는 탈 소비에트 러시아 뿐 아니라 멀리는 소련 및 제정 러시아 시대까지 올라가는 역사적 연원을 찾을 수 있는 현상으로 러시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존재해 왔다. 엘친 대통령에 비해 강력한 통치력을 확보한 푸틴의 재직 시에 관료구조를 조정하고 관료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행정 부문 및 국가 집행부를 개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관료 구조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권력의 수직화는 위에서 아래로 집행되는 배분의 활용을 통해 행정 권력의 작동이 경제 혹은 비즈니스 부문에 개입하여 운영권을 갖게 되는 현상을 파생시켰다.¹³⁾

러시아에서 이미 1993년 12월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된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내각 임면권, 사법부 구성권 및 실질적 탄핵 불가권 등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친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엘친 대통령이 의회 구성에서 다수의 지지세력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즉 제도적으로 구비해놓은 강력한 중앙집권의

11) R. J. Brym, and V. Gimpelson, "The Size, composition and dynamics of the Russian state bureaucracy in the 1990s," *Slavic Review*, vol. 63, no. 1 (2004), pp. 90-91.

12) В. Кузмин, "Минус 100 - тушах, пледроженно сократить феделалины чиновник,"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September 23, 2010.

13) Wiliam Tompson, "Putin and the 'Oligarchs': A Two-Sided Commitment Problem," Alex Pravda, eds., *Leading Russia: Putin in Perspecti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179-202.

통치 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한 채 엘친 대통령은 해야했지만, 푸틴은 수직적 권력의 행사를 통해 자신의 통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2. 법의 독재

‘법의 독재’는 푸틴이 취임 초기부터 권력의 수직화와 더불어 강조하기 시작한 개념으로 중앙 집권화된 정부를 구성하여 강한 국가 건설에 매진하고자 하는 푸틴의 정책 목표를 반영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수직적 권력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법의 독재는 대통령의 권한 강화와 수직적 권력 확립을 위해 취한 법적·제도적 조치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법의 독재가 시행되기 위해 실시한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2000년 5월 연방 차원의 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위해 기존 89개의 연방구성주체 지역을 7개의 광역행정 구역 단위로 개편하고 각각의 단위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전권대표를 파견했다. 중앙 권력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지방 수장을 새롭게 임명함으로써 지역 단위에서의 권력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했다.

2000년 8월에는 ‘연방회의 구성법’과 ‘지방행정 및 입법기관 구성법’을 제정하여 수직적 권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구비를 마쳤다. 상원구성법은 연방회의 의원을 상임제로 변경하고 기존 89개의 연방구성주체의 행정부 및 입법부 수장이 당연직으로 차지하던 직위를 각 연방구성주체의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이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새롭게 구성된 연방회의 의원은 명목상으로는 지방을 대표하고 있지만 모스크바에 상주하면서 연방정부의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예속적인 입법기관으로 전락했다. 더불어 푸틴은 지방정부의 행정수장들이 자동적으로 연방의회 상원의원으로 등록되는 규정을 폐지함과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던 면책특권도 폐지시킴으로써 이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중앙정부에 더욱 종속적인 입장에 놓이도록 만들었다.¹⁴⁾ 2004년 12월에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공화국 대통령, 주지사 및 시장 등 연방구성주체의 행정부 수장을 국민 직선을 뽑던 제도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후보를 추천하고 지방의회가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푸틴은 취임 후 연방 구조 뿐 아니라 중앙 정부 구조 차원에서도 일대 변화를 기하는 제도 변화를 시도했다. 그 내용은 주로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및 법적 완비였다. 그 결과, 2001년 7월 정당법을 개정하여 정당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난립하던 군소정당들을 사실상 퇴출시켰다. 지구당 설치 요건과 재등록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정당등록과

14) John P. Willerton, "Semi-presidentialism and the Evolving Executive," Stephen White, Richard Sakwa and Henry E. Hale, eds., *Development in Russian Politics* 7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0), pp. 27-32.

유지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정당들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크렘린의 노선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정당 및 정치 그룹들을 대거 통합하여 '통합러시아'(Unity of Russia)라는 러시아 특유의 '권력당'을 출범시켰다.

푸틴의 법의 독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당에 대한 등록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기존에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하던 의회 선출방식에 일대 변화를 기하는 조치로 다수대표제를 폐지하고 완전 비례대표제로 바꾸었다. 그 결과 권력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확립되었다. 권력당이 사실상 의회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놓은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의회는 크렘린의 의사에 반대하기 어려운 허약한 구조로 바뀌었고, 푸틴체제는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 및 대통령 행정실의 우위를 확보하면서 푸틴체제를 확립하는데 유리한 기초를 놓게 되었다. 푸틴이 주장하는 법의 독재는 법질서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푸틴은 그 과정에서 헌법에 반하는 법의 독재를 하지 않았지만, 헌법의 범위 안에서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집행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권력 및 입법, 사법, 행정부의 3권 독립 체제의 조정, 올라가르히 처벌 등 기존 법을 초월하는 전능한 권력 행사를 할 수 있었다.

푸틴 집권 초기의 이와 같은 법의 독재 경향은 2011년 12월 총선에서의 권력당의 지지율 감소와 총선 이후 나타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영향으로 타격을 입고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조치가 뒤따르게 되었다. 그 주요 조치로는 주지사 직접 선거의 재도입 및 정당등록 요건의 완화 등이 해당된다. 그 결과 러시아 정치체제 내에서 정치적 경쟁이 과거보다 활성화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푸틴체제의 원형 자체가 바뀐 것은 없다.¹⁵⁾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당국의 대응은 강경하며, 시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푸틴은 여전히 법적으로, 또한 법 이외의 영역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대중의 지지에 기반하여 통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법의 독재 개념은 사라진 것이 아니며, 푸틴체제가 수행하는 일련의 통치방식과 정책을 통해서 구현 가능한 실체로 남아 있다.

3. 주권 민주주의

푸틴주의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개념적 구조물 중에서 한 때 많이 회자되었던 용어로 '주권 민주주의'를 제시할 수 있다. 푸틴 자신이 개념을 소개하고 전파했다기보다는 푸틴 주위의 측근에 의해서 확산된 주권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푸틴 집권 이후 푸틴이 주도하는 러시아 정치에 대한 비판을 주로 서구에서 제기하는데 대한 반박의 성격이 강하다. 2005년 푸틴은 의회연설을 통

15) Richard Sakwa, "Political Leadership," Stephen K. Wergen, eds., *Return to Putin's Russia: Past Imperfect, Future Uncertain*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13), pp. 25-44.

해 러시아의 고유한 역사 및 지정학적 특징에 입각해 러시아만의 민주주의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푸틴의 언급에 뒤이어 당시 대통령실 제1행정 부실장이었던 블라디슬라프 수르코프(Vladislav Surkov)가 주권민주주의를 개념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널리 회자되기 시작했다. 수르코프는 러시아는 서구와 전혀 다른 세계이며, 서구식 민주주의는 러시아에 적합하지 않다고 전제한다. 러시아는 러시아식 전통과 공동체 문화에 입각한 주권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르코프는 러시아의 주권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도전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적인 압력으로부터 안전하게 격리되면서, 동시에 러시아 내부에서 제기되는 부패, 범죄, 올리가르히가 제기하는 경제 문제 등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수르코프는 러시아에 긴요하게 요구되는 이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권력의 작동, 즉 위로부터 지휘 받고 사회 내의 지나친 갈등은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같은 체제 확립을 위해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지속적인 권력 장악과 친 푸틴 정당인 통합러시아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역설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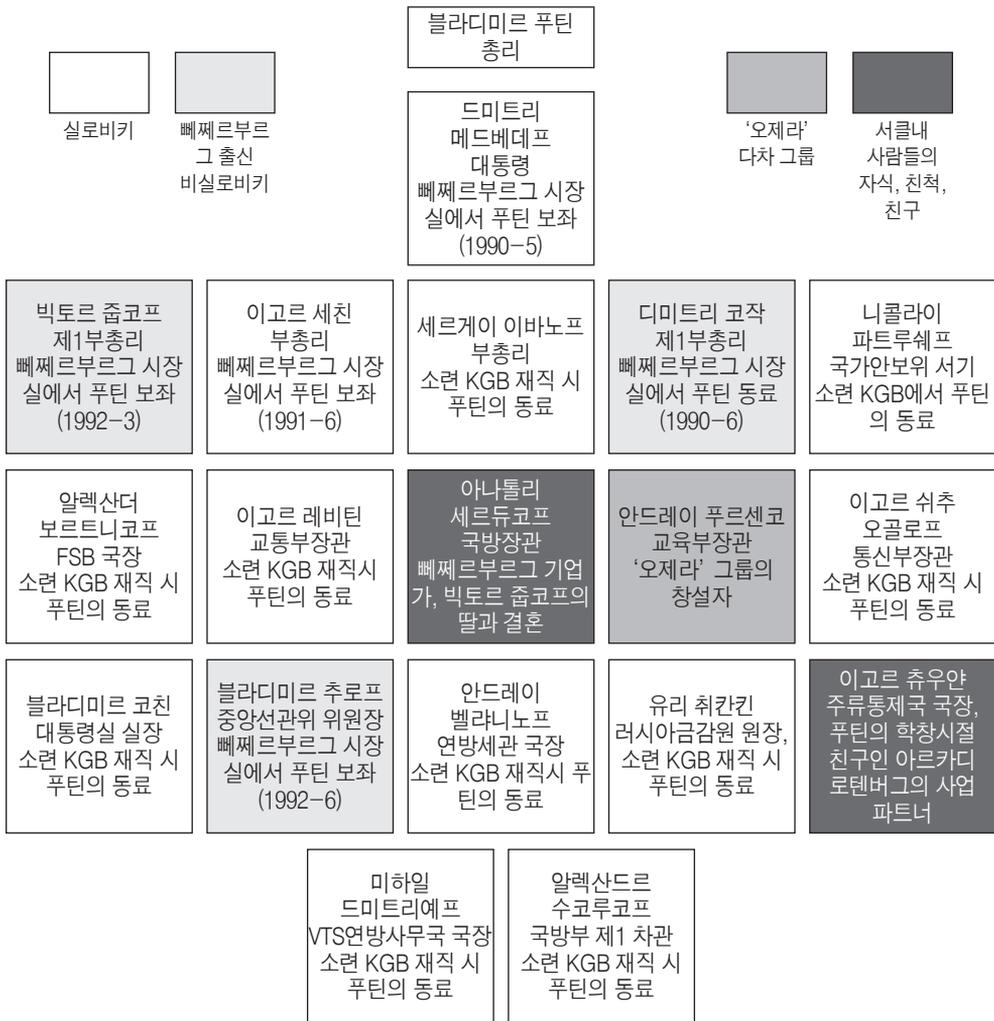
푸틴 자신은 이 개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던 적도 있지만 푸틴 집권 2기에 여당 격인 '통합러시아당'의 강령에도 포함되었을 정도로 푸틴체제의 정치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같은 공식화는 단순히 당의 이념적인 강령으로서 뿐 아니라 푸틴이 집권하는 시대의 대표적인 정치적 성과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주권 민주주의는 하나의 개념, 슬로건, 국가적 관념,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준거로서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기획의 다면성을 제시한다. 이 개념이 갖고 있는 다의적인 측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화가 가능하도록 구상되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주권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권력당(party in power)에 새로운 정당성(legitimacy)의 근거를 제시한다.
- 당의 핵심 요원들에게 다른 엘리트 집단들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 정권과 국민 사이에 새로운 사회적 계약 체결
- 이념에 대한 통제권을 당의 수중에 귀속한다.

16) В. Сурков, "Национализация - будущего. Параграфы про суверенную демократию," А. Гусенинов, *Демократия для России-Россия для демократий* (Москва: IFRAN, 2008), pp. 70-85.

〈표3〉 푸틴의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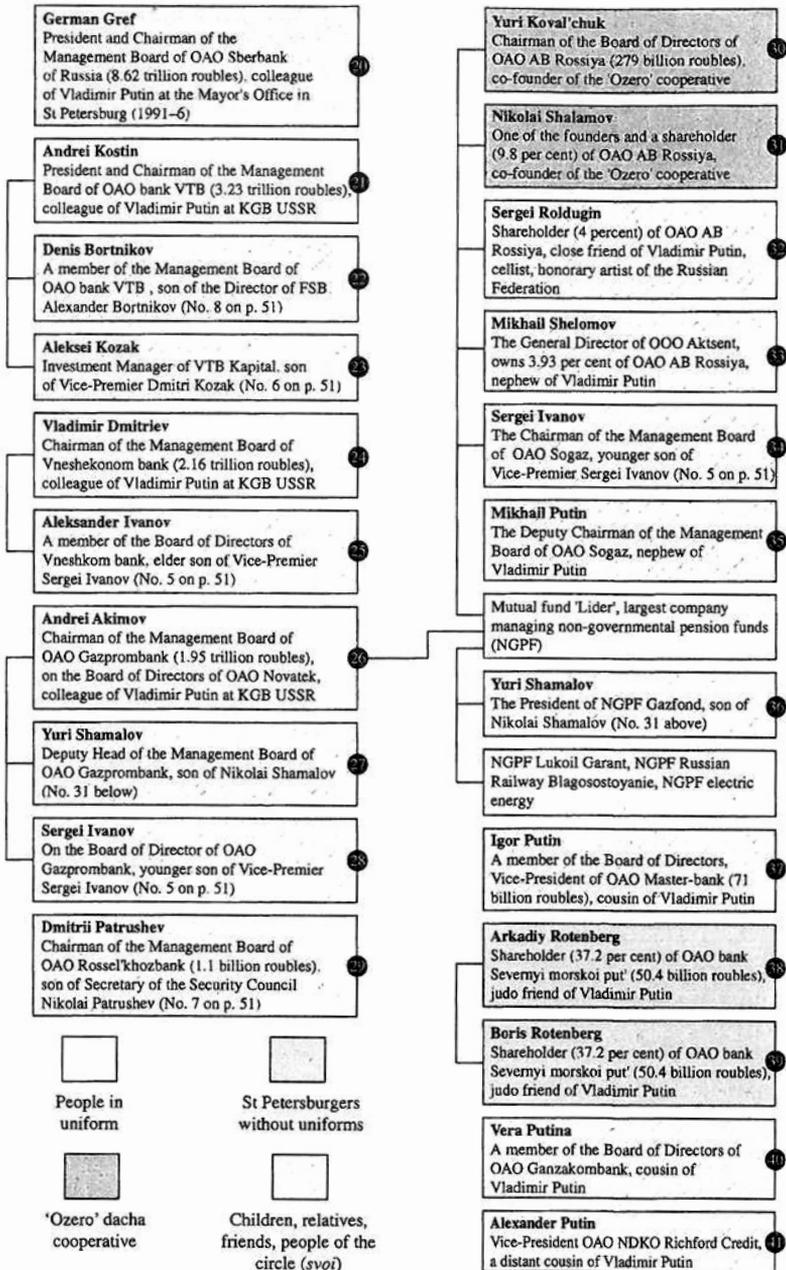


※ 출처: *The New Times*, October 25, 2011, p. 6.

- 푸틴 대통령에게 푸틴의 노선을 상기시키며 측근들에게 충성을 유지하도록 만든다.
- 통합러시아당을 정당 권력 구조에서 핵심으로 위치지운다.
- 2007년 가을 의회 선거에서 통합러시아당의 선거 캠페인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메시지로 만든다.
- 국내외정책에 위협이 되는 새로운 도전에 맞서서 국민동원 및 통합 요소로서 활용한다.
- 대중참여 정치의 범위를 협소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적이고 조작적인 근거를 제공한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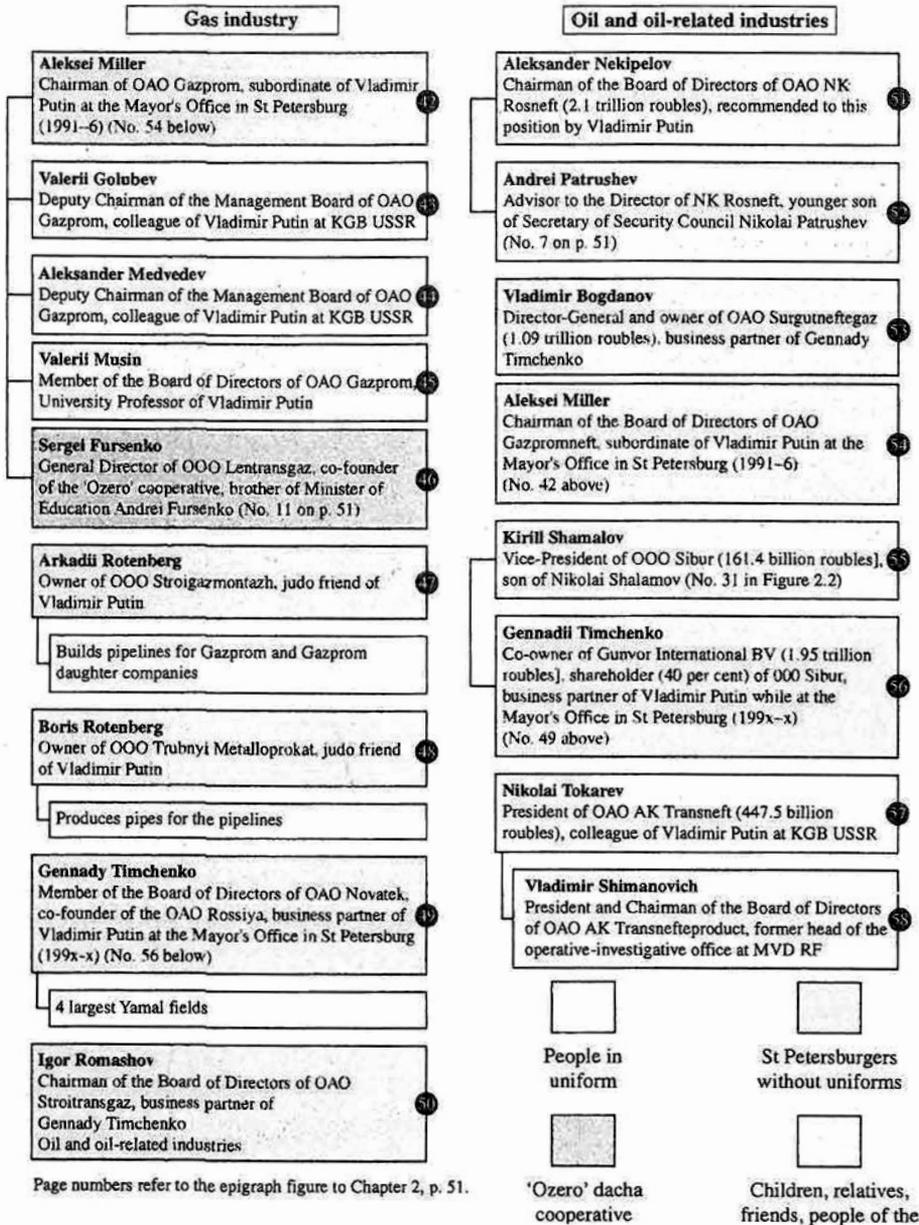
17) Andrei Okara, "Sovereign Democracy: A New Russian Idea Or a PR Project?" *Russia in Global Affairs*, vol. 5, no. 3 (2007), pp. 10-11.

〈표4〉 푸틴의 은행 및 금융 부문 네트워크



※ 출처: The New Times, October 23, 2011, p. 7.

〈표5〉 푸틴의 가스 및 석유 관련 산업 네트워크



※ 출처: *The New Times*, October 23, 2011, p. 8.

주권 민주주의는 엘친 통치기에 등장한 ‘관리 민주주의’(managed democracy)와 연관된다. 다만 관리 민주주의는 푸틴의 대통령 재직 초기에 산적했던 러시아의 국내 문제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관리 민주주의는 국가의 지위 하락, 올리가르히의 지배, 혼돈과 총체적인 근대화의 오류 등 엘친 집권 시기를 특징지웠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갓 출범한 푸틴 정권과 집권당의 존재를 부각시키는데 기여했다. 반면에 주권 민주주의는 등장 초기에 국제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글로벌 경쟁, 에너지 자원의 확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제약하려는 일부 국가들, ‘색깔 혁명’(colored revolution)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목적은 동일했다. 즉 민족과 세계공동체의 시각에서 집권 세력을 정당화하고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게끔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¹⁸⁾

‘주권’과 ‘민주주의’라는 조화가 되지 않는 두 개의 요소를 조합하여 러시아의 정치 시스템으로 구축하려 했던 시도에 대해 러시아 국내에서도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인사들, 혹은 고르바초프(M. Gorbachev)처럼 사회민주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비판을 가했고, 서구에서는 주권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개념적 모순과 러시아의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주권 민주주의는 반 서구적 러시아 국수주의의 일환에 불과하며, 러시아가 주권 민주주의를 강조할수록 서구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¹⁹⁾

주권 민주주의는 푸틴 8년 집권 이후 메드베데프가 집권하면서 덜 강조되기 시작했고, 2013년 5월 주권민주주의의 이데올로그인 수르코프가 부총리직에서 해임되면서 그 수명이 다한 것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마저 나타났다. 푸틴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개념이자 수사라고 할 수 있다. 푸틴주의의 한 축으로서 주권민주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내용적으로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가능하며, 실제 이와 같은 현상이 2012년 5월 푸틴의 3기 집권 이후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크렘린이 주권민주주의의 시스템 내에서 집권당과 이에 맞서는 ‘충성스러운 야당’ 하나 정도를 사실상 용인하는 구조를 선호했는데, 다양성을 더하기 위해 2012년 대선에서는 제3 후보의 등장도 허용한 바 있다. 푸틴 3기 집권 후에는 크렘린이 직접 나서서 푸틴의 지지 세력을 전국적으로 결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정권 차원의 이같은 대처 방식의 변화는 정권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푸틴의 과거 재임 시보다 다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에 맞서 보다 안정적으로 푸틴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면 선제적으로 동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결과로 인식된다.

18) Andrei Okara (2007), p. 18.

19) Edward Lucas, *The New Cold War: Putin's Russia and the Threat to the Wes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pp. 37-56.

IV. 푸틴주의의 유형 및 평가

1. 푸틴주의의 유형

푸틴은 그의 측근들이 지적하듯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실용주의자이다.²⁰⁾ 푸틴 집권 이후 점차 확립된 푸틴주의는 정교한 계획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그 때 그 때 만들어진 산물의 조합이기도 하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집권이 길어지고, 그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현상을 접하면서 이론적으로 푸틴주의를 어떤 유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또 푸틴주의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푸틴은 적어도 2024년까지 집권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집권한 기간까지 합치면 약 4반세기 동안 러시아 정치를 지배할 기회를 갖게 된다.

푸틴주의의 유형과 관련하여 최근 제시된 견해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헤르펜(M. Herpen)의 역사적 유추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는 역사적으로 푸틴체제와 가장 유사한 선례로 1930년대 후반 이후 약 12년간의 집권기에 급진화되었던 무솔리니(Benito Mussolini)의 통치를 견주어 있다.²²⁾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도 쇼비니즘(chauvinism)의 명목으로 정치권력을 중앙집권화하고, 국유화하지 않고도 경제를 장악하거나 경제 올리가르히들과 마피아들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무솔리니 체제와의 유사성을 거론했다. 파시스트 체제는 민족의 위대성과 국수주의적 교의를 불러일으키고, 영광스러운 과거 신화를 고양시킨다. 이와 유사하게 푸틴도 체카(Cheka, 레닌의 비밀경찰)의 전통과 조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²³⁾ 브레진스키는 처음 푸틴이 집권한 후 5년 만에 이같이 설파했는데, 시간이 지난 2010년대에도 그의 견해가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헤르펜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푸틴체제와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체제간의 유사성 외에도 독일의 바이마르(Weimar) 공화국과 비교할 때 유사성이 더 많이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²⁴⁾ 이와 같은 유추는 한 가지 가정을 제시하도록 만든다. 바이마르 체제와 유사하다면 바이

20) Fiona Hill & Clifford G. Gaddy, *Mr. Putin: Operative in the Kremli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3), pp. 211-212.

21) 같은 집권기라고 해도 2000년과 2012년의 푸틴체제는 각기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2000년 보다 2012년에 민족주의적 정서가 더욱 팽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Richard Sakwa (2013), pp. 32-41.

22) Marcel H. Van Herpen, *Putinism: The Slow Rise of a Radical Right Regime in Russi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3), pp. 5-6.

23) Z. Brzezinski, "Moscow's Mussolini: How Putin is Creating A Fascist State," *The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20, 2004.

24) N. Ferguson, "Look back at Weimar—and Start to Worry about Russia," *The Telegraph*, January 1, 2005; P. Goble, "Weimar— Like Threat Justifies Moscow's Authoritarianism, Russia's Chief Justice Says," *Window on Eurasia*, <http://www.windowoneurasia.blogspot.com/2009/04/window-on-eurasia-weimar-like-htreat.html> (검색일: 2014.1.28); O. Matthews and A. Nemtsova, "Fascist Russia?" *Newsweek*, August 15, 2011.

마르의 결과물인 파시스트 체제와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 간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에 대해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파시스트 체제에 대한 협의와 광의의 정의를 동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제3의 형태로서 공격적이고, 군사적이며, 팽창주의적인 성격을 더한 접근법을 설정한 연 후에 푸틴주의와 이를 비교한 결과 그리핀(R. Griffin)이 ‘파시스트 미니멀’(fascist minimal)²⁵⁾ 이라고 한 현상 즉, 민족의 재탄생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체제 내에서 초민족주의적 정서(ultra nationalist fervor)가 증대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점이 나타나지만, 다른 점도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푸틴체제 하에서는 자유주의적(liberal) 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욱 온건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야당을 억압하지만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며, 파시스트 체제처럼, 준군사적인 동원기관이 없다. 푸틴체제에서는 선거도 주기적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소수이긴 하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는 신문과 라디오 방송도 존재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푸틴의 러시아는 전체주의 국가는 아니다.²⁶⁾

전간기 이탈리아의 체제와 푸틴의 체제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기 때문에 보다 적합한 역사적 사례로서 나폴레옹 3세(Napoleon III)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체제가 거론된다. 나폴레옹 3세의 체제는 푸틴체제와 대단히 유사한 측면들을 갖고 있는데, 전능한 권한을 갖고 있는 비밀경찰, 약하고 조작 가능한 의회와 더불어 공식적으로는 다당제를 유지하며, 영토 확장의 목표를 갖고 있고, 외부로 군사적 모험을 감행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폴레옹 3세의 체제는 유사파시스트 체제로 간주된다.²⁷⁾ 하지만 푸틴의 체제는 프랑스의 보나파르티즘(Bonapartism) 보다 훨씬 현대적이다. 푸틴체제는 민중에 대한 물리적 억압을 선거 조작과 대중 매체를 통한 심리적인 쇄로 바꾼 현대적인 파퓰리스트 체제(modern populist system)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제의 특성은 이탈리아의 미디어 제왕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체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²⁸⁾ 푸틴과 베를루스코니, 두 사람은 알려진 대로 절친한 사이인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우정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모두 “스스로 부유해져라(Enrich yourselves)”라는 메시지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와 개인주의적인(individualistic)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다.

베를루스코니는 잘 알려진 것처럼, 언론장악을 통해 정치적 성공의 기반을 닦은 정치인이다. 특히 TV 방송을 정치에 활용하는데 능했는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민영방송사 미디어셋(Mediaset)을 통해 2008년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기여했다. 2004년 이전까지 이탈리아 방송시

25) R. Griffin, *The Nature of Fascism* (London: Routledge, 1993), p. 13.

26) M. Herpen (2013), pp. 101-135.

27) R. Price, *Napoleon III and the Second Empire* (London: Routledge, 1997), pp. 6-24

28) P. Ginsborg, *Silvio Berlusconi: Television, Power and patrimony* (London: Verso, 2005), pp. 154-160.

장은 공영방송 RAI가 45%, 베를루스코니 소유 3개 민영채널이 44%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4년 가스피리법(Gaspari Bill)을 도입하여 RAI 이사의 2/3를 정부 및 여당이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방송의 여론기능을 독점적으로 통제했던 베를루스코니 체제는 뉴스보도 방침도 새롭게 만들어 정부 권력에 '사유화된' 방송으로 전락시켰다. 또한 베를루스코니는 푸틴처럼 정적을 합법적인 반대자로 보지 않고 적으로 규정해 탄압하는데 앞장섰다.

〈표6〉 이탈리아의 TV 방송채널별 연간 시청점유율(1991~2003년) (단위: %)

	1991	1996	2001	2001	2003	'91~'03 변동
RAI 1	21.6	23.2	23.8	23.8	23.3	1.7
Canale 5	16.3	21.3	23.6	22.6	22.8	6.5
RAI 2	18.9	14.8	13.5	13.0	12.1	-6.8
Italia 1	11.1	11.9	10.3	11.3	12.1	1.0
RAI 3	8.9	9.9	9.6	9.7	9.4	-1.4
RAI 4	10.5	9.1	9.4	9.0	9.1	-1.4
La 7	-	-	2.0	1.8	2.2	-
기타 채널	12.6	9.8	7.8	8.8	9.1	-3.5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 출처: CvdM(commisariaat voor de Media) & D. Ward, *A Mapping Study of Media Concentration and Ownership in Ten European Countries* (2011), p. 98, <http://www.cvdM.nl/content.jsp?objectid=11610> (검색일: 2014.1.25).

푸틴 역시 집권 첫 해에 크렘린의 통제 하에 독립적인 방송국들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이 때 크렘린과 친교가 있는 올리가르히들이 경영하는 방송국만 살아남았다. 푸틴 정부는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미디어 그룹의 소유권을 강제로 조정하기 위해 금융관련 법률을 이용했다. 러시아에는 아직까지 방송이나 주요 미디어 부분에 대한 현대적인 법이 없는 상태이다.²⁹⁾ 언론 자유에 대한 국제적 평가에서 러시아와 이탈리아는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베를루스코니와 푸틴체제 간의 공통점은 압도적인 행정 권력이 다른 기관들을 종속화시킨다는 데에서 나타난다. 두 사람이 만든 정당도 대단히 유사하다. 푸틴의 '통합러시아'와 베를루스코니의 '포자 이탈리아'(Foza Italia) 모두 분명한 프로그램이 없으며, 정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도자(푸틴과 베를루스코니)를 돕는 것이다. 1993년에 베를루스코니가 창당했을 때, 그는 당의 소유주였고 당의 활동가들은 그가 갖고 있는 기업의 직원들이었다. 통합러시아는 푸틴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크렘린의 대통령실이 창당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두 사람에게 정당은 개인적인 정치적 야심을 실현하는 도구였다. 베를루스코니는 자신의 막강한 경제력을 이용하여 선거를 조작할 수 있었고, 푸틴처럼 자신이 권좌에 있는 동안 TV 방송 모두를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³⁰⁾

29) B. Beumers, S. C. Hutchings and N. Rulyova, *The Post-Soviet Russian Media: Conflicting Signals* (Oxford: Routledge Taylor & Francis, 2009), pp. 37-55.

30) M. Herpen (2013), pp. 190-193.

〈표7〉 러시아 TV 방송의 잠재적 시청자, 커버리지 및 선호도(1999) (단위: %)

채널	시청자 (잠재층 포함)	커버리지 (상반기)	커버리지 (하반기)	선호도 (12월 24~26)
ORT	98	87	88	41
RTR	95	72	77	13
NTV	72	59	58	25
TV6	58	32	37	25
TV-center	39	15	19	4
Kultura	36	10	13	no data
CTC	35	16	19	no data
TNT	32	12	15	no data
REN-TV	27	13	11	no data

※ 출처: Ivan Zassoursky, Media and Power in Post-Soviet Russia (New York: M.E.Sharpe, 2004), p. 196.

〈표8〉 러시아의 상위 TV 채널 순위(2005) (단위: %)

채널	소유권	컨텐츠	2005년 비율(%)
제1 채널	국가가 51% 소유, 나머지는 국영 기업체가 보유	뉴스와 오락	22.9
로시아	국가가 51% 소유, 나머지는 국영 기업체가 보유	뉴스와 오락	22.6
민영	민간 및 국가	뉴스와 오락	12.3
NTV	민간	뉴스와 오락	11.2
STS	민간	오락	10.3
REN TV	민간	오락과 뉴스	6.7
TNT	민간	오락과 뉴스	5.0
TV-Centre	모스크바시 정부	뉴스와 오락	2.6
Kui' tura	국가	문화	2.5
Sport	민간	스포츠와 오락	1.8
DVT Viaset	민간	스포츠	1.5
MTV	민간	음악	1.1
MUz TV	민간	음악	1.0
Domashinyi(가정)	민간	홈쇼	1.0

※ 출처: Sarah Oates and Gillian McCormack, "The Media and Political Communication,"

결국 푸틴주의는 초민족주의, 민족적 재탄생, 제국주의적 국수주의와 같은 '고전적' 파시즘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같은 유형에 포함되기 힘들고, 나폴레옹 3세의 보나파르티즘이 갖고 있는 유사 파시즘(proto-fascism)의 현대적인 버전이라고 규정하기도 힘들다. 푸틴주의는 전적으로 새로운 혼합적 정치체제(hybrid political system)로서 3가지 체제, 즉 고전적 파시즘, 보나파르티즘, 21세기의 베를루스코니의 체제가 갖고 있는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혼합형 체제는 전 근대(pre-modern)와 근대(modern)의 특성을 결합하고 있다. 글로벌화된 발전된 자본주의 경제를 채택하면서 내적인 억압을 함께 유지하고 있다. 푸틴체제는 기능적인 다당체제를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사적인(privatized) 정치적 공간이며,

단일 정당이 권력을 독점한다. 푸틴체제는 ‘법의 독재’를 강조하지만 사실상 법을 초월한다.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지만, 조지아(George) 전쟁처럼 이웃 국가를 침략하여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다. 국가를 현대화한다는 목표를 선언했지만 푸틴체제는 정치적 자유와 안정적인 권력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³¹⁾

푸틴체제가 속하는 유형에 대한 논의는 푸틴체제가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한 분석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물론 유형과 성격은 동일한 특성을 내용과 형식이라는 면에서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푸틴체제는 새로운 유형의 ‘혼합형 체제’(hybrid mixture)라는 점에서 그 독특성을 갖고 있지만, 푸틴 개인이 사라지면 체제도 함께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개인화된(personalised)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푸틴주의 및 푸틴체제 자체는 공고화된 구조를 갖고 있기 보다는 불안정한(unstable) 체제로 간주할 수 있다.

2. 푸틴주의의 성격

그동안 푸틴이 만들어 놓은 체제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용어 중에 “관리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코포레이트 자본주의”(corporate capitalism) 라는 표현도 있었다. 런던 정경대학의 앤 애플바움(Anne Applebaum)은 푸틴체제가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고 보면서, 여기에 1980년대 푸틴이 몸담고 있었던 KGB의 문화와 밀접하게 결합된 혼합체로 간주하면서 ‘푸틴주의 이데올로기’(Putinism-the ideology)로 명명하고 있다. 즉 푸틴의 전력으로부터 몸에 밴 KGB 문화가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관리 민주주의 및 코포레이트 자본주의가 푸틴주의라는 독특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다고 간주한다.³²⁾ 푸틴주의가 이데올로기라는 주장은 앞서 언급했듯이, 푸틴주의가 준비된 체제가 아니라 그 반대로 상당히 정교하게 계획된 장치임을 암시한다. 그 근거로 러시아의 공교육기관에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이 되고 있으며, 공공 선거 과정에서 공표되거나 미디어에서 선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푸틴주의는 러시아 외교정책의 기초로 작용하고 있으며,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하나의 지침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수 있다. 푸틴주의가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를 두려워하도록 다시 강한 러시아가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데에서 나름대로 중심 교의(doctrine)를 갖고 있다고 본다. 물론 맑스-레닌주의처럼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화가 가능한 속성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푸틴주의는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과거에 비해 푸틴의 적들이 늘어난 상태에서 연합세력을 모을 수 있는 형태로 푸틴주의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³³⁾

31) M. Herpen (2013), pp. 7-8.

32) Anne Applebaum (2013), pp. 1-10.

33) Anne Applebaum (2013), p. 4.

푸틴주의가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푸틴주의가 갖고 있는 특성은 앞서 언급했듯이, 선거와 정당 및 통치 과정 전반은 물론 푸틴주의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적 행위의 결과를 포괄하는 '관리체제'라는 점이다. 관리 시스템은 상세하고 주의깊게 준비되고 결과까지 관리하는 체제이다.³⁴⁾ 현대 러시아의 정치체제가 선거를 통해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러시아를 '선거 민주주의'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푸틴주의 하에서 선거 역시 기획에 의해서 작동 가능하다. 선거가 가장 민주주의적인 장치로서 큰 문제없이 러시아에서 작동한다고 하지만 결과를 정해놓고 그것에 맞춘다는 것은 허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정치적 결과를 조작하는 러시아 시스템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유권자는 민주적 과정에 개입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우연히 들르는 방문객일 뿐이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자연스럽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획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이같은 속성은 앞부분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언급을 피하고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 푸틴주의는 정치권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확고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언론정책이다.³⁵⁾ 적어도 언론정책의 측면에서 푸틴은 자신의 KGB 시절 상관(수장)이었던 유리 안드로포프(Y. Andropov)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신의 반대자들 모두의 입을 강제로 닫게 하는데, 물론 오늘날의 작동 시스템은 다르다. 이론적으로는 어느 선까지는 언론의 자유가 존재한다. 작게 유지된다면 소규모의 독립 언론은 존재 가능하다. 현상에 본질적으로 위협이 되지만 앓는다면 독립적인 언론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정한 영역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방송인의 질문이 지나치게 불편하게 만든다면 당국의 공식적인 태도가 변한다. 푸틴을 비판했던 모스크바의 한 신문사(Novaya Gazeta)는 기사가 폭행당하고 사무실이 파괴되고 계좌 수색을 당했다. 이 신문의 유명 기자 안나 폴리트콥스카야(A. Politkovskaya)는 자신의 아파트 건물에서 백주에 살해당했다. 대중들에게 가하는 스탈린식 폭력이 아니라 정해진 목표, 가장 알려지고 가장 인기있는 대상을 지목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이 침묵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올리가르히인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M. Khodorkovsky)나 대표적인 인기 가수 그룹 푸시 라이오트(Pussy Riot)가 이에 해당된다.

푸틴주의 이데올로기의 작동은 관리 민주주의라는 정밀하게 고안된 장치가 추진력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관리 경제'(managed economy)가 뒷받침하고 있다. 논평자에 따라서는 러시아 경제를 자본주의로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푸틴주의 하에서 작동하는 경제체제가 자본 시장이나 은행 같은 자본주의적인 기관들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해서 자본주

34) Richard Sakwa, Putin: Russia's Choi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4), pp. 86-88.

35) Khristina Narizhnaya, "Russian media under pressure ahead of Putin presidency," <http://www.globalpost.com/dispatch/news/regions/europe/russia/120402/russian-media-under-pressure-Putin-presidency> (검색일: 2014.1.27).

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피상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대추구(rent-seeking) 경제가 지배하고 있기에 미국이나 서유럽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사우디처럼 공식적인 지배 기문이 아니라 러시아에서는 푸틴의 몇몇 측근들이 러시아에서 가장 큰 (에너지) 회사들과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에서 공직을 수행하면서 산업계의 수장 역할을 하는 이중 직위(직업)를 갖고 있다. 다른 소유주들은 엘리트 정 상부에 남아있기 위해 정치인들과 자신의 부를 공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언제나 불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경제가 정치인 셈이다. 오늘날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10년 전의 그 사람들이 아니며, 어떻게 해서, 왜 그 자리에 있게 됐는지가 분명치 않다.³⁶⁾

푸틴주의의 경제적 특성은 푸틴이 가끔 경제 '개혁'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정 신을 광범위하게 장려하는 법률적 체계나 중소 규모의 자본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은행 시스템을 만드는데 관심이 없다는 데서 나타난다고 본다. 대신에 푸틴은 국가와 다른 올리가히 들로부터 자신의 친구들과 아마도 자기 자신에게 부를 대대적으로 이전하는데 주력했다. 그렇다면 푸틴이 장악한 체제에서 왜 선거를 치르고, 자신을 스스로 대통령으로 임명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정답은 체제의 속성과 연관되는데, 푸틴의 목적은 자신의 그룹(clique)이 갖고 있는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푸틴을 위시한 전 KGB 이너 서클(inner circle)이 자신들의 권력과 부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믿는 것은 서구가 아니라 서구민주주의의 수사(thetoric)이다. 푸틴과 메드베데프는 서구의 군사적 공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았고, 그들은 대중의 불만과 자신들의 개인적인 부에 대한 대중들의 의심과 푸틴주의의 근본 가치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4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오렌지 혁명 같은 유형의 정치적 집회나 2011년 겨울 러시아 총선 후 러시아인들이 벌인 정치적 시위 같은 대중적 저항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간 공고했던 푸틴주의의 지속성이 차츰 약해지고 있다. 언론에 대한 푸틴의 독점이 인터넷 사용 증대로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인들이 명백한 언급은 없었지만 암묵적으로 받아들였던 '관리된 선거'(managed election)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의사 표명이 나타났다. 푸틴이 조직한 정당과 시민단체들도 새로운 성원들을 충원하기보다는 공개적인 부패와 연관된 오명을 쓰고 비판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반대 그룹이 출현하고 있다는 현상이다. 반대자들은 인권 문제보다는 정부기관이나 정부가 개입하는 경제 부문에서의 비리나 부패 및 투명성 결여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푸틴주의가 존립하는데 필수적인 장치들이다.³⁷⁾

36) Anne Applebaum (2013), pp. 6-7.

37) 우평균, "2012 러시아 대선 결과 분석과 중산층의 정치세력화 가능성," 『정치·정보연구』 제15권 1호(2012), pp. 250-254.

푸틴주의는 자생적이었기 보다는 만들어지고 관리되어 온 성격이 강하다. 푸틴주의는 이념적인 성격보다는 실용주의적인 국가경영 책략에 가깝다. 문제는 푸틴이 소비에트 시대의 어떤 지도자 못지않게 장기간 집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푸틴이 만들어 놓은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의 성격에 대해 규정이 필요하다는 자연스러운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낡은 듯 하지만 새로운 특성을 갖고 있는 푸틴주의는 그 자체가 불안정한 체제이기 때문에 장기간 존속할 가능성은 낮다. 물론 그 변형은 가능하다. 푸틴이 하야하고 나서는 변화가 가능하겠지만, 당분간은 쉽게 변하지 않을 속성도 동시에 갖고 있다.

V. 결론

공산주의가 지배했던 오랜 질곡의 시대를 벗어난 현대 러시아가 사상과 이념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주의라는 새로운 국가주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게 되었다. 푸틴주의는 하나의 완결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이념형이 아니며, 정교한 논리적 장치 역시 부재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무정형적인 임시변통의 성격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집권이 10년을 넘기고 최대 24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체제의 성격 규명 문제가 제기 가능하다. 푸틴의 집권 기간은 소련에서도 브레즈네프(L. Brezhnev, 18년) 보다 길고, 스탈린에 비견될 정도로 긴 시간이며, 짜르 체제의 여느 황제와 다를 바 없는 재임 기록이기도 하다. 따라서 적어도 푸틴 통치기 동안에 푸틴체제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푸틴 집권 기간에 국한하는 이유는 푸틴이 미래에 물러나고 다른 지도자가 들어서거나 다른 체제가 구축되면 푸틴주의는 기억 속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푸틴주의와 푸틴체제 자체가 지나치게 '개인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푸틴 자신이 없다면 함께 사멸할 수 있다. 만일 과거와 마찬가지로 푸틴이 물러나면서 메드베데프가 계속 총리로 재직하고 있다면 메드베데프에게 다시 대통령직을 물려줄수도 있지만, 설사 메드베데프가 2024년 이후 집권 하더라도 푸틴주의를 보존할 가능성은 낮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체제를 새롭게 구축할 것이다.

푸틴주의는 성격상 혼합형 체제이다. 푸틴주의는 권위주의 체제의 속성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1930년대 이탈리아 파시즘 체제와 유사한 속성도 갖고 있다. 또한 19세기 나폴레옹 3세의 보나파르티즘의 주요한 특성도 공유하고 있으며, 시간을 건너 뛰어 21세기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체제와도 연관성이 있다.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근대 권위주의 체제의 몇몇 사례들을 아우르는 특성을 갖고 있는 푸틴주의가 독창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은 푸틴주의 체제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른 역사적 사례들과 다른 점이 있다. 푸틴주의는 민

주주의 체제가 아니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다. 국유화하지 않고 경제를 통제하는 특성도 있다.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가하면서 일부 독립적인 언론의 활동은 보장하고 있다. 이같은 푸틴주의의 특성이 푸틴주의를 권위주의이면서 권위주의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실제 푸틴정권이 이렇게 보이도록 노력해왔다.

푸틴주의는 오래가지 않아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다. 푸틴주의의 주요 구성 논거와 그 요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미 변화하거나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변모해야 하는 푸틴주의의 비영구적인 속성은 결국 푸틴의 통치가 마감될 때 함께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푸틴주의가 역사적으로 존중되고 러시아에 희망이 되는 방법은 푸틴주의에서 국가주의를 탈각하면서 푸틴 리더십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길이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드골주의(Gaullism)처럼 국가가 주도하되 사회적 활력을 유지하고,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체제가 된다면 푸틴은 러시아 뿐 아니라 세계사에도 기여하는 위대한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강한 러시아를 열망하는 푸틴 자신도 러시아를 드골시대의 강한 프랑스처럼 만들고 드골 같은 인물이 될 것을 염원했던 만큼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푸틴주의에 관한 연구가 진척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는데 본고의 의미를 두려한다.

참고문헌

- 강봉구. 2010. “푸틴주의 정치 리더십의 권위주의적 특성과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14권 제2호, 3-30.
- 고재남 · 엄구호 엮음. 2009. 『러시아의 미래와 한반도』. 파주: 한국학술정보.
- 정한구. 2008. 『푸틴-메드베데프 체제의 출범과 러시아 정치의 장래』, 세종정책연구 4-1. 성남: 세종연구소.
- 우평균. 2012. “2012 러시아 대선 결과 분석과 중산층의 정치세력화 가능성.” 『정치 · 정보 연구』 제15권 1호, 243-270.
- 이영형. 2009. “러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주권민주주의 자극요인.” 『한국과 국제정치』 제25권 제2호, 173-204.
- 이종문. 2010. “푸틴시대 러시아 국가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 국가경제발전모델의 관점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1호, 69-105.

120402/russian-media-under-pressure-Putin-presidency.

- Applebaum, Anne. 2013. “Putinism: The Ideolog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Strategic Update* 13(2), 1-10.
- Beumers, B. & Hutchings, S. C. & Rulyova, N. 2009. *The Post-Soviet Russian Media: Conflicting Signals*. Oxford: Routledge Taylor & Francis.
- Brym, R. J. and Gimpelson, V. 2004. “The Size, composition and dynamics of the Russian state bureaucracy in the 1990s.” *Slavic Review* 63(1), 90-112.
- Brzezinski, Z., 2004. “Moscow’s Mussolini: How Putin is Creating A Fascist State,” *The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20.
- CvdM(commisariaat voor de Media) & D. Ward, *A Mapping Study of Media Concentration and Ownership in Ten European Countries*. 2011, <http://www.cvdM.nl/content.jsp?objectid=11610>.
- Ferguson, N. 2005. “Look back at Weimar-and Start to Worry about Russia,” *The Telegraph*, January 1.
- Fish, M. Steven, 2005. *Democracy Derailed in Russia: The Failure of Open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l’man, Vladimir. 2005. “Political Opposition in Russia: A Dying Species?” *Post-Soviet Affairs* 21(3), 226-246.
- Ginsborg, P. 2005. *Silvio Berlusconi: Television, Power and patrimony*. London: Verso.
- Goble, P. 2009. “‘Weimar’- Like Threat Justifies Moscow’s Authoritarianism, Russia’s Chief Justice

- Says,” Window on Eurasia, <http://www.windowoneurasia.blogspot.com/2009/04/window-on-eurasia-weimar-like-htreat.html>.
- Griffin, R. 1993. *The Nature of Fascism*. London: Routledge.
 - Herpen, Marcel H. Van. 2013. *Putinism: The Slow Rise of a Radical Right Regime in Russi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Hill, Fiona & Gaddy, Clifford G. 2013. *Mr. Putin: Operative in the Kremli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Ledeneva, Alena V. 2013. *Can Russia Modernise?: Sistema, Power Networks and Informal Gover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cas, Edward. 2008. *The New Cold War: Putin's Russia and the Threat to the Wes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Lynch, Allen C. 2011. *Vladimir Putin and Russian Statcraft*. Washinton D.C.: Potomac Books.
 - Matthews, O. and Nemtsova, A. 2011. “Fascist Russia?” *Newsweek*, August 15.
 - Narizhnaya, Khristina. 2012. “Russian media under pressure ahead of Putin presidency,” <http://www.globalpost.com/dispatch/news/regions/europe/russia/>
 - Oates, Sarah. and McCormack, Gillian. 2010. “The Media and Political Communication,” Stephen White, Richard Sakwa and Henry E. Hale, eds., *Development in Russian Politics 7*.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18-134.
 - Okara, Andrei. 2007. “Sovereign Democracy: A New Russian Idea Or a PR Project?” *Russia in Global Affairs* 5(3), 8-20.
 - Price, R. 1997. *Napoleon III and the Second Empire*. London: Routledge.
 - Sakwa, Richard. 2004. *Putin: Russia's Choi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akwa, Richard. 2013. “Political Leadership,” Wergen, Stephen K. eds. *Return to Putin's Russia: Past Imperfect, Future Uncertain*.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5-44.
 - Tompson, Wiliam. 2005. “Putin and the ‘Oligarchs’: A Two-Sided Commitment Problem.” Alex Pravda, eds. *Leading Russia: Putin in Perspecti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79-203.
 - Willerton, John P. 2010. “Semi-presidentialism and the Evolving Executive.” Stephen White, Richard Sakwa and Henry E. Hale. eds. *Development in Russian Politics 7*.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42.
 - Zassoursky, Ivan. 2004. *Media and Power in Post-Soviet Russia*. New York: M.E. Sharpe.
 - *The New Times*, October 23, 2011, October 23, 2011.
 - Крыштановская, Ольга. 2005. *Анатомия Российской Элиты*. Москва: Захар

овб.

- Кузмин, В. 2010. “Минус 100 тушах: пледроженно сократить феделалины чиновник,” *Россиская Газета*, September 23.
- Миронов, В. 2005. “Комментарий. Админрефогма: удвоенный аппарата,” *Ведомоть*, №. 108, June 16.
- Сатаров, Г. 2010. “Недоваренная лапша на развесистых ушах. Вертикаль власти,” *Ежедневный журнал*, 21 October, <http://ej.ru/?a=note&id=10484>.
- Сурков, В. 2008. “Национализация будущего. Параграфы про суверенни ю демокрацию,” А. Гусеинов, *Демокрация для Россий-Россия для демокраций*. Москва: IFRAN.

Modern Russia's Govern Ideology: The Nature of the Putinism

Pyung Kyun Woo
(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ersity)

keywords

Russian Idea, Putinism, Bonapartism, Berlusconi, Party of Power

The new govern ideology in Russia, 'Putinism' has been firmly established after his first inauguration to presidency in 2000. Putin not only dominates the political scene in Russia, but also plays an equally prominent role on the global stage. This paper has a purpose to suggest the nature and the contents of the Putinism, and to evaluate it. Putinism is not a ideology in traditional meaning, but something like a vision for policy of Putin himself. The vision can be classified with 3 categories, 'vertical power', 'dictatorship of the law', 'sovereign democracy.'

Putinsim, like Mussolini's regime in 1930s, evoked national greatness, discipline, and exalted myths of an alleged glorious past, but Putin did not rule as a totalitarian leader. Putinism is not a fixed, but a dynamic category. Though Putin, Napoleon III, and the Berlusconi has some common characteristics in their ruling, Putinism is unstable hybrid system. Putinism, as an authoritarian system, is bound to the personal fate of the leader and his clan. It is therefore highly unstable. The big question is how it will develop in the near future. In this paper, it is predicted that Putinism will be disappeared easily if the leader go out from his tenure of presidency, because Putinism is too personal govern idea.